



◇부모님은 가난할지라도 아이들 마음은 부자다. 아이들에게 누군가 조금만 더 '희망'을 불어넣어준다면 우리 사회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비싼 학원 안가도 공부 썩썩 재미 짱~!

미아 '희망 만들기 열린학교'

IMF이후 불교계 최초로 문열어
저소득층 자녀 대상, 전액 무료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수업진행



◇학생들의 물품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선반.

2000년 기준 전국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 규모 약 7조1천2백7십6억1천4백만원. 학생 100명 중 56명은 사교육을 받는 현실. 하지만 서울 미아6동에 위치한 방과후 교실 '희망만들기 열린학교(교장 신응균)'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사교육비가 필요치 않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대표 정련)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이다.

5월 28일 오후 2시쯤 미아 열린학교를 찾았을 때 '교장' 선생님은 탁자에 앉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정규 수업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되지만 먼저 온 학생들의 자습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교장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과 기자에게 한 마디씩 반갑게 대답해줬다.

열린학교는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의 뿌리인 가정 이 흔들리자 1999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이를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몫을 조금이나마 책임지기 위해 시작했다. 2000년 7월에는 안암동 로타리에 옹두 희망만들기 열린학교가 열렸다.

불교계 최초의 방과후 학교인 미아 열린학교는 40여명 규모에 교실 2개와 컴퓨터실, 법당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때는 전국에서 제일 크고 내실있었지만 이제는 후원금이 줄어 교장 선생님 한 명과 자원봉사자 15명 정도가 학교를 이끌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CJ에서 나오는 4명, 동덕여대 화학과 동아리 '아린사이'('아린'은 겨울눈을 싸고, 뒤에 꽃이나 잎 따위가 될 만한 부분을 보호하는 비늘 조각이라는 뜻) 8-9명, 주부 불자 2명 등으로 이뤄져있다.

희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방과 후 각종 학원에 쫓아다닐 때 그들은 희망학교로 물러온다. 교육 대상은 3-6학년이지만 빈집에 동생들을 두고 울 수 없어 특별한 교육 대상이 있지는 않다. 한달 운영비는 300-400백만원 정도. 쓰러면 한없이 들어가는 게 교육비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오후 4시 쯤 되자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선생님도 몇 분 모습을 보였다. 이명진 글씨사 선생님(23, 천안대 중국어학과 4, CJ에서 나온 김장원(39, DNS주진팀 부장) 수학선생님, 주부 불자 이민애(47) 선생님.

이명진 선생님은 올해 1월 학원인 줄 알고 희망학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월 12만원의 보수도 감수했다. 김장원 선생님은 '사회공헌'이라는 회사 내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었다. 3년 전 옹두 희망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던 선생님은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민애 선생님은 별도로 과외지도도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희망학교에 몸담았다. 이왕이면 불교계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를 찾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업이 시작돼도 교실 안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 교실 저 교실을 뛰어 다니는 아이들. 선생님이 말씀을 해도 탁자에 엎드리거나 바닥에 누워버리는 아이들. 출석체크 후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금은 버릇없을지라도,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기초학력이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신응균 교장선생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사회에 진출해서도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빈곤의 세습화'가 이뤄진다"며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지금 열린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우리 불자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문의:02-983-3783 후원계좌:980-04-095494 희망학교 (조흥은행)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응균 교장
미아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실직 부모 재취업했을 때 보람
한달 월급 학교 운영비에 보태

미아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신응균 교장선생님(43·사진은 33살 때인 94년 자비의 집이 문을 열면서 경부선과 인연을 맺었다. 친구와 건축회사를 운영하다 혼자서 잘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물어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해 친구에게 양보했다. 신 교장선생님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가졌던 생각도 한 몫을 했다.

신 교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영비다. 이웃종교의 경우 방과후 교실이 연합체 단위로 정부에 프로젝트를 신청해 기금을 따내지만 불교의 경우 연합체를 구성할 단위조차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직한 부모들이 열린학교에 아이들을 맡긴 뒤 안정된 상태에서 70-80% 이상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는 보수는 학교 운영비로 쓴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더니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요 뭐..."라고 대답하곤 씩 웃는다.

어딘가 조금은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속은 꽉 차 보이는 남자 신응균. 그는 아직 미혼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든 삼정삼심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삼심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삼심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삼심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